

술·밥 사고 헐뜯고… 또 선거 타락

전남도선관위, 당원단합대회 음식물 제공 8명 목포지청에 고발

음식 접대받은 22명에 30배 과태료 부과

4·11 총선과 관련,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주민 20여 명이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는 등 선거운동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선거일이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공방도 거세지는 등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혼란 당원 단합대회를 예비후보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하고 행사 참석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선관위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관위 조사서류를 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이들로부터 음식물 접대를 받은 250여명 중 신원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친 22명에게 음식물 값의 30배인 21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신문광고를 통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한 A씨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

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혼란 당원 단합대회라는 명목으로 행사를 열면서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저지를 흥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행사 참석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선관위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관위 조사서류를 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이들로부터 음식물 접대를 받은 250여명 중 신원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친 22명에게 음식물 값의 30배인 21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신문광고를 통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한 A씨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황 후보의 정책선거 주문에 대해 경선 경쟁자인 민주통당 김명전 예비후보가 반박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논평을 통해 “본인의 허물은 덮어둔 채 마지막 나머지 상대 후보들이 거짓 선전과 상대 비방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자 존중받아야 할 상대후보에 대한 또 다른 인신공격이다”며 반박하는 등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선거전이 조기에 과열되고 있는 것은 사상 최대 물갈이가 예상되면서 공천을 따내려는 예비후보 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4·11 총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은 광주 17건, 전남 25건 등 총 42건에 이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8년 지지부진 광주 군공항 이전 탄력

이달 임시국회서 특별법 통과 전망

도심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월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어서 8년여 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공 비행장 이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통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6일부터 시작될 국회 국방위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별법’(이하 특별법)은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김진표(민·수원 영통구)·유승민(한·대구 동구 읍)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특별법 이전 대상에는 광주를 비롯한 대구·수원·청주·강릉 군 공항 등이 해당된다. 특별법 핵심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최종 부지가 국방부장관이 후보지에 관할 단체장과 협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조직위는 박람회 기간(5월 12일~8월 12일) 여수에 들어오는 크루즈선 탑승객은

사증이 없더라도 현장 심사 후 즉시 입국이 허가되며 문에 익스포 관람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박람회 기간(5월 12일~8월 12일) 여수에 들어오는 크루즈선 탑승객은

“크루즈선 탑승객

심사후 입국허가”

여수박람회 조직위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조직위는 1일 크루즈선 이용객들이 비자 문제로 익스포 관람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 관람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박람회 기간(5월 12일~8월 12일) 여수에 들어오는 크루즈선 탑승객은 사증이 없더라도 현장 심사 후 즉시 입국이 허가되며 문에 익스포 관람에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크루즈선 이용자들의 익스포 관람 편의를 위해 비자 없이도 3일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출입국 관리법을 최근 개정했으나

비자 면제 시점이 익스포 개막일을 크게 넘긴 5월 27일 이어서 관람 차질 우려가 있다.

/동부축제본부 김동철기자 chkim@

전남 신안 압해·자은·안좌 등 전국 4곳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상반기 결정

지식경제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전남 서남권 등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경부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개발 계획안을 제출하면 민간전문가 평가단의 평가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설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을 상반기 안에 끝내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입주 국내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연합뉴스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지경부가 전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신청한 곳은 전남과 강원, 경기, 충북 등 4곳이다. 전남도는 신안 압해·자은·안좌 등 27.4㎢를 다도해 섬 관광과 풍력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이 일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전남 서남권 등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화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통행동(근린시설)
대1181㎡, 건2850㎡
감정가 31억9천
최저가 14억3천

목포죽동(목포국정)
대985㎡, 건3177㎡
감정가 41억5천
최저가 18억5천

수기동 [12층관광호텔]
대923㎡, 건5588㎡
감정가 74억8천
최저가 23억4천

경복구미[골프연습장]
대51503㎡, 건7399㎡
감정가 112억6천
최저가 38억

목포용당[7층모텔]
대547㎡, 건1734㎡
감정가 13억4천
최저가 6억

목포달동[물류터미널]
대32840㎡, 건5984㎡
감정가 187억6천
최저가 53억8천

신안동[스포츠센터]
대3026㎡, 건5984㎡
감정가 69억3천
최저가 35억8천

유동화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지경부가 전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신청한 곳은 전남과 강원, 경기, 충북 등 4곳이다. 전남도는 신안 압해·자은·안좌 등 27.4㎢를 다도해 섬 관광과 풍력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이 일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전남 서남권 등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전남 서남권 등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전남 서남권 등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전남 서남권 등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전남 서남권 등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전남 서남권 등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전남 서남권 등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전남 서남권 등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전남 서남권 등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전남 서남권 등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전남 서남권 등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전남 서남권 등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전남 서남권 등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전남 서남권 등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전남 서남권 등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전남 서남권 등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